

제13차 인문대학 운영위원회 회의록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여학생회장	체육부장	국어국문학과	독일언어문학과
한정빈	문태석	-	-	백주오	정유승
0	0	공석	공석	0	0

불어불문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김승호	김자은	정지수	윤상준	김한비	한승기
0	X	X	0	X	X

총원	10	결원	4	현원	6	서기	박광명
----	----	----	---	----	---	----	-----

1. 활동 보고

<인문대학 학생회>

06/30

- 인문대학 집행부 정기회의

07/01

- 경영대X사범대X인문대 연합축제 전체 회의

07/03

- 등꽃제전 TF 회의

07/05

- 중앙운영위원회 참석

07/08

- 경영대X사범대X인문대 연합축제 팀장 회의
- 인문대학 행정실 면담

<국어국문학과>

- 보고 없음

<독일언어문학과>

06/30

- 6월 건의 사항 종합

<불어불문학과>

- 보고 없음

<사학과>

06/29

- 학생회 회의 및 교수님 미팅

07/02

- 7월 월간 달력 업로드

<영어영문학과>

07/05

- 신입생 야유회
- 7월 학사일정 카드뉴스 업로드

<일어일문학과>

06/29

- 분쿄가쿠인대학 교류회 참가 인원 모집

<중어중문학과>

- 보고 없음

<철학과>

- 보고 없음

<활동 보고 관련 논의 및 질의응답>

Q1. 인문대 회장: 분쿄가쿠인대학 교류회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일본 학교로 가서 진행하는 것인가? 일본 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와서 진행하는 것인가?

A1. 일문과 회장: 일본 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온다. 일본 대학 학생들과 우리 대학 학생들이 조를 짜서 활동하거나, 문화교류를 하는 식으로 행사 진행한다.

Q2. 인문대 회장: 교류회는 방학 때만 진행하는 것인가?

A2. 일문과 회장: 교류회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교수님들께서 유학 시절에 알고 계시던 외국 교수님과의 친분을 통해 행사가 잡히기도 한다. 또 국제교류과에서 직접적으로 학교 대 학교로 교류회를 하고 싶어 하는 학교가 있으면 일본 대학 같은 경우는 일문과에서 전담으로 맡아서 교류회를 진행하고 있다. 언제 어떻게 열리는지는 알 수 없고 교수님들께서 잡아주시는 경우는 한 달 전쯤에 알려주시는 것 같다.

1-2. 개별 보고

1. 연합축제 회의 결과

가. 팀 구성 및 대략적인 컨셉 선정

- 1) 경영대, 사범대, 인문대 학생회 이름을 딴 ‘셋별’로 선정

나. 진행 날짜

- 1) 연합축제 진행 예정일: 10월 8일
- 2) 총축제 진행 예정일: 10월 6일 ~ 10월 7일
 - 가) 총축제보다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어서 총축제보다 늦은 10월 8일을 지양
- 3) 총축제 10월 6일 ~ 10월 7일로 확정될 경우
 - 가) 9월 28일이나 10월 1일 혹은 9월 초로 날짜 조정할 예정
- 4) 아직 총축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진행 날짜는 추후 재전달할 예정

다. 부스 희망하는 학과

- 1) 부스 희망하는 학과는 말씀 주시면 연합축제 부스 팀에게 전달할 예정
- 2) 추후 단독방에 공지할 예정

2. 등꽃제전 TF 회의 결과

가. 진행 날짜

- 1) 9월 21일 ~ 9월 22일로 운동장 구두 예약 완료하였지만, 체육교육과 수업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아서 변동 가능성 있는 상태
- 2) 체육교육과와 이야기하여 최대한 조정할 예정

나. 예선

- 1) 모든 종목 예선 각 학과당 한 경기씩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
- 2) 운동장 공사 종료 예정일이 8월 10일인 관계로 예선은 8월 10일 이후에 진행 예정
- 3) 세부 사항은 7월 23일 회의에서 각과 체육부장들과 함께 재논의할 예정

<개별 보고 관련 논의 및 질의응답>

Q1. 일문과 회장: 부스 진행하게 된다면 위치가 어떻게 되나?

A1. 인문대 회장: 연합축제 진행하는 장소는 일단 경영대 로터리 쪽을 막을 것이며, 막은 위치부터 인문대 차 없는 거리까지가 확정이다. 그리고 진리관 쪽 길은 본부 직할과 이야기해 봐야 한다. 그래서 부스를 놓는 위치는 무대가 어디에 설치되냐에 따라서 다르겠고, 무대를 만약에 경영대 로터리 쪽에 설치한다면 인문대 인도에 부스를 설치하게 되겠고, 무대를 인문대 쪽에 설치한다면 경영대 쪽 인도가 부스 위치가 될 것이다.

2. 심의 및 의결 안건

- 심의 및 의결 안건 없음

3. 논의 안건

1. 등꽃체전 여자 PK

가. 뒷짐을 진 상태로 골키퍼를 맡는 남학우의 부상 위험 우려

나. 여자 PK 종목의 변경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학과별 입장 7월 23일까지 전달 바람
다. 논의

- 1) 일문과 회장: PK가 부상 위험이 크니 빼자는 것인가?
- 2) 인문대 회장: PK를 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나, 손을 안 쓰고 공을 막기 위해서 뒷짐을 지는 것이 규칙상 정해져 있는데 뒷짐을 지고 있으니, 공을 얼굴로 막는다거나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을 짚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다.
- 3) 일문과 회장: 뒷짐을 지는 룰 자체가 유지되는 것이라면 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실 사람의 손은 공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손을 사용하게 되기도 하는데 무게중심을 잡는 것 또한 방해하기 위해서 뒷짐을 지게 하는 것인가?
- 4) 인문대 회장: 제 경험상 각 과에서 축구를 진행할 때 주로 골키퍼를 하는 친구들이 여자 PK 골키퍼로 출전하는 경우가 잦다. 이렇게 되면 여학우들의 공을 쉽게 막을 수 있기에 생긴 규칙이고 넘어질 때 손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 5) 일문과 회장: 현재 PK 룰이 지금 당장은 골키퍼가 어떠한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지 않은가?
- 6) 인문대 회장: 그렇다.
- 7) 일문과 회장: 그렇다면 자세에 대한 룰보다는 공이 골키퍼의 어깨 아랫부분 즉, 상박과 하박에 해당하는 부위 혹은 손에 닿으면 무효 처리와 같은 페널티를 줘서 손을 피하게 만들면 되지 않나? 굳이 뒷짐만 지고 진행한다는 자세를 설정하면 부상 위험이 있으니, 손은 자유롭게 두되 전완이나 이두, 삼두에 닿는 것까지 페널티로 줘버리는 것이다.
- 8) 인문대 회장: 알겠다. 내일 TF 회의 때 이야기해 보겠다. 그런데 저희도 아직 이야기만 나온 상태라 각 과 학생회 집행부 회의 또는 학생들 의견을 받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았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빼지는 않을 것이다.

4. 기타 안건

- 기타 안건 없음